

## 베르토네 교황청 국무원장과의 오찬 견배사

존경하는 타르치시오 베르토네 국무원장 예하, 그리고 귀빈 여러분,

오늘 오전 교황청 방문은 매우 특별한 느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한국 천주교 신도들의 존경과 애정이 각별한 곳 이어서 저도 매우 가깝고 친근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한 교황청 대사관은 제가 있는 청와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천주교회의 역할은 참으로 큼니다. 선교 초기 박해와 순교의 아픈 역사를 딛고 이제는 신도 수가 5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교육과 빈민 구제, 인권 신장과 민주화에 기여하며 국가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천주교회의 발전은 하느님의 은총과 교황청의 지도력, 그리고 천주교 신도들의 기도와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국무원장 예하를 비롯한 가톨릭 지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국민은 교황청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103위 복자에 대한 시성식을 집례하는 등 한국을 두 차례나 방문해 주셨

고, 지난해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는 한국 천주교회의 오랜 소망이었던 또 한  
분의 추기경을 서임해 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 협력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었습니다.  
1995년 이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을 촉구하는 등 우리의 평화변영정책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한  
국 천주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예하의 건강과 교황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건배를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